



전북은행 목련회, '사랑나눔 제빵 봉사활동'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는 지난 16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랑의 빵 나눔터에서 '사랑 나눔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북은행 여직원들로 구성된 목련회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꾸준한 기부와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했다.

이날 전북은행 목련회 회원들은 자녀들과 함께 오전과 오후로 나눠 총 2회에 걸쳐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목련회 회원들은 재료 손질부터 반죽, 빵 모양 만들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했으며, 완성된 빵 600여개를 직접 포장하며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완성된 단팻빵은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김태희 회장은 "자 구워낸 빵의 온기가 담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작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희 기자



인후2동, '대일제분소' 착한가게로 선정

전주 원도삼에 이웃과 사랑을 나누려는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 인후2동(동장 이진숙)은 18일 유계상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대일제분소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3만 원씩 정기기부하는 착한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유계상 주민자치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소외계층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 실천으로 이웃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이윤자 전주시의원 마전파크골프장 회원로부터 감사패 받아

전주시의회 이윤자 의원이 18일 효자4·5동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마전파크골프장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윤자 의원은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마전골프장 운영과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능중 회장은 "이윤자 의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애민정신으로 지역발전이 기여해왔다"면서 "특히, 마전파크골프장의 노인복지 향상과 현신적인 현안문제 해결로 구장 환경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윤자 의원은 "주민들 곁에 머물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이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윤자 의원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효자2,3,4동 전주시의원출마한다. /김윤상 기자



평화2동 '출동! 지구지킴이', 줍깅으로 스타트

전주시 평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명덕)와 동 주민센터(동장 이영애)는 동네 복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지역아동들과 함께 깨끗한 우리 동네를 위한 「출동! 지구지킴이」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아동들이 동네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체력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줍깅(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로 음식을 포장해오는 '용기내 캠페인', 환경교육 참여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18일 줍깅에 참여한 한 아동은 "담배꽂이가 너무 많아



줍느라 힘들었지만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뿌듯하고 친구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워서 재밌었다"고 말했다.

권명덕 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지구지킴이가 되어 주변 쓰레기를 주워보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모집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2022년 한국119청소년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119청소년단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단체이다.

남원소방서는 지난해 4개대 71명의 한국119청소년단을 조직해 활동했으며, 주요 활동 내용은 어린이119긴급구조통제단 훈련과 119소방통용대회 및 불조심 캠페인, 행부나눔 편지쓰기 등이다.

가임을 희망하는 어린이 및 학교는 한국119청소년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등록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063-630-824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백성기 서장은 미래 안전문화를 선도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주평통 전북 자문위원, 경북 산불피해 성금 전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는 전북지역 자문위원들의 온정을 모아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1천만원 성금을 전달했다.

전북지역회의는 지난 15일 경북도청에서 홍종식 전북부의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지역 5개 시·군협의회장 민주평통 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지난달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14개 시·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홍종식 전북부의장은 "산불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경북도의 빠른 피해 복구와 어려움을 당한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금을 주신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에 감사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김제 진봉면, 새만금 바람길 건강 걷기 행사 개최

김제시 진봉면(면장 오승영)은 18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바람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진봉면사무소에서 출발하여 전진 마을, 망해사를 지나 봉수대를 거쳐 거전마을 종점까지 걸어가는 약 10km 코스를 진행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마을 주민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걸으며 새만금 바람길의 수려한 경관을 만끽하고, 민·관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

오승영 진봉면장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주민 참여 행사가 위축된 상황에서 작게나마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기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새만금 바람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바람길은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산?물?바다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마실길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새만금 바람길의 중간지점인 망해사에는 낙서전(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28호)이 고즈넉히 심포함을 비추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치와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김제=곽도태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많을수록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하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